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행복한 사랑(시 1:1-3)

## 장애인 장학 복지기금 수여 남가주밀알선교단

남가주밀알선교단의 2021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3월 6일(토) 오후 3시, 산타페스프링스에 있는 남가주 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에서 열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밀알선교단은 미주장애인장학생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31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제3국 및 중남미 장학생 10명,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20명 등 총 91 명에게 119,000달러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애 학생들의 학업 정진과 생활 도움을 위해 2001년 시작된 장애인 장학복지기금 지급 총액은 이날까지 2,644,000달러 이른다. 장학복지기금 재원은 매년 가을 열리는 '밀알의 밤' 후원 행사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남가주 남가주밀알선교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정성어린 동참으로 금년에도 장애인 장학복지기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조병국 목사, 이하 교협)가 '제 11차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연다.

교협이 행사를 통해 5천 포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과 미자립 교회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5만 달러(쌀 한 포당 10달러) 모금을 목표로 교계와 지역 교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금과 물품은 오는 31일까지 접수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주은혜감사교회(2120 W 8th St. #360, LA, CA 90057)에서 배포한다. 조병국 목사는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다."면서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문의: (213) 219-8999

대개의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많은 돈을 버는 일에 최대한 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사람들은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부자들도 참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에 런던 정경대학에서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 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어이가 없게도 방글라데시와 아제르바이잔, 나이지리아가 1, 2,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가 코언(Cohen) 씨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행복지수에)서도 방글라데시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를 사람들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사람들은 더 좋은 여건에 금방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행복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더운 여름에 부채만 있을 때에는 선풍기만 있어도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선풍기를 갖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은 에어컨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갖게 되어도, 사람들은 또 다시 더 좋은 조건을 바라기 때문에 행복감은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두 번째 이유는 소득 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2만 달러를 받을 때에 5만 달러를 받는 것이 좋으나, 아니면 남들이 20만 달러를 받을 때에 10만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좋으나?" 라고 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

면, 남이야 얼마를 받든, 5만 달러보다는 10만 달러를 받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록 작게 받아도 남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 사람들이 잘 살면서도 후진국 사람들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물질적 만족에는 한이 없기 때문이고,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인 물질에 매여 사는 한,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나 환경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도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설령 물질이나 환경이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과 환경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환경을 초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위대하

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 있지만, 마음이 그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불교를 배우는 어떤 수도승이 그의 고승에게 다서 "스님,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했더니, 스승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꺼내서 보여 주라. 그러면 마음을 고쳐주마!"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수도승은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하,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않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마음을 꿩꿩 앓았으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저도 실로 마음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내 마음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참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매사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매사에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신 8:3, 마 4:4).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이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읍시다.

-이신건 목사-

#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모집

- 모집 인원 풀타임 디자이너 1명
- 제출 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각 1부
- 서류 제출 방법 info@townnewsusa.com 이메일 제출
- 기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일정은 개인별 통보함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404-0027 (Rosecrans Ave + Valley View Ave)